

『화가 났어요』 독후 활동지



게일 실버 글 | 크리스틴 크뢰머 그림 | 문태준 옮김
불광출판사 | 40쪽 | 1-2학년 창작동화
우리 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1

“

어린이가 스스로 화를 다스려
평온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는 책

”

활동1 양에게 있었던 일

양에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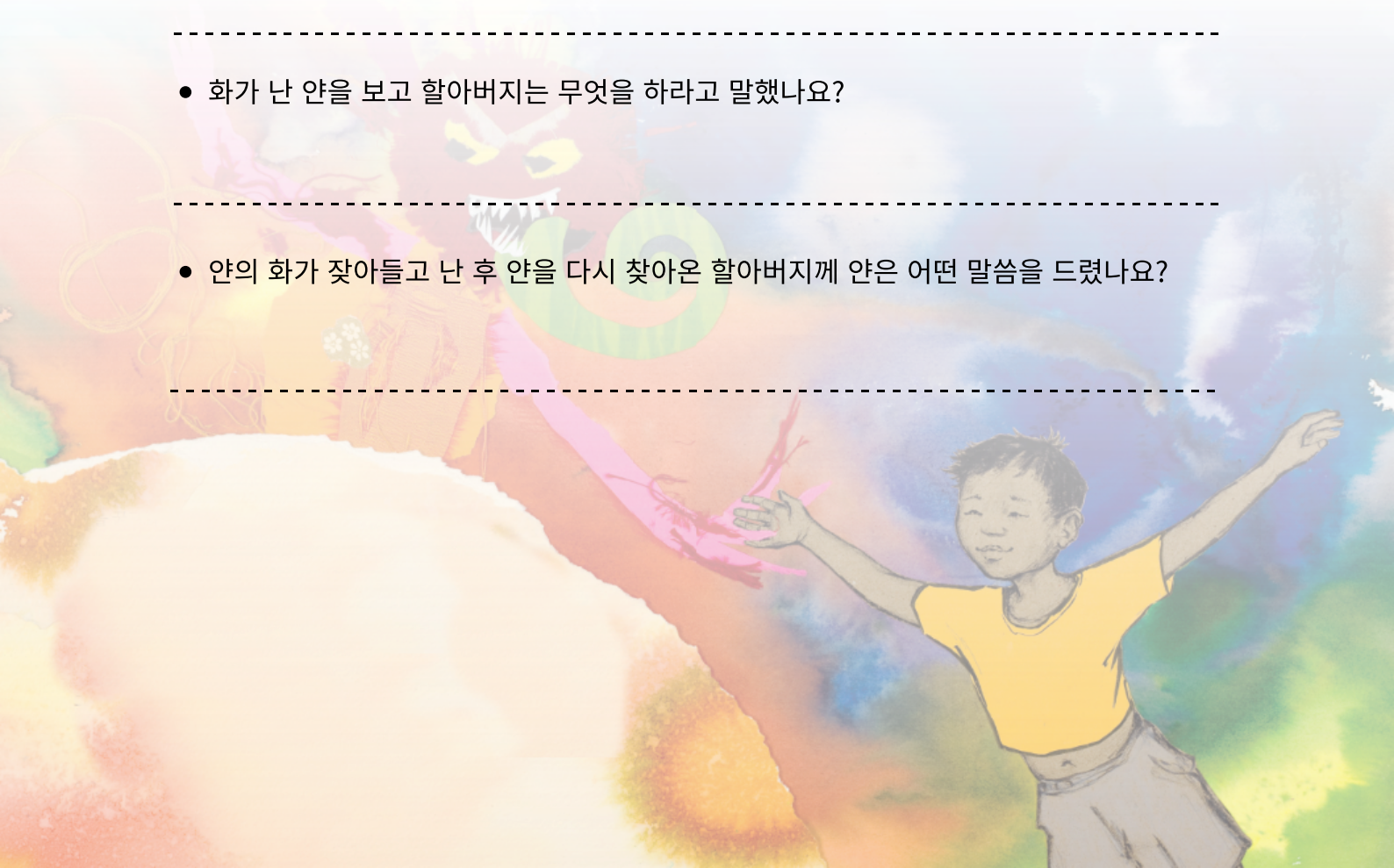
- 양은 왜 화가 났을까요?

- 할아버지는 왜 양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했을까요?

- 화가 난 양은 처음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 화가 난 양을 보고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라고 말했나요?

- 양의 화가 잦아들고 난 후 양을 다시 찾아온 할아버지께 양은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활동2 나에게 있었던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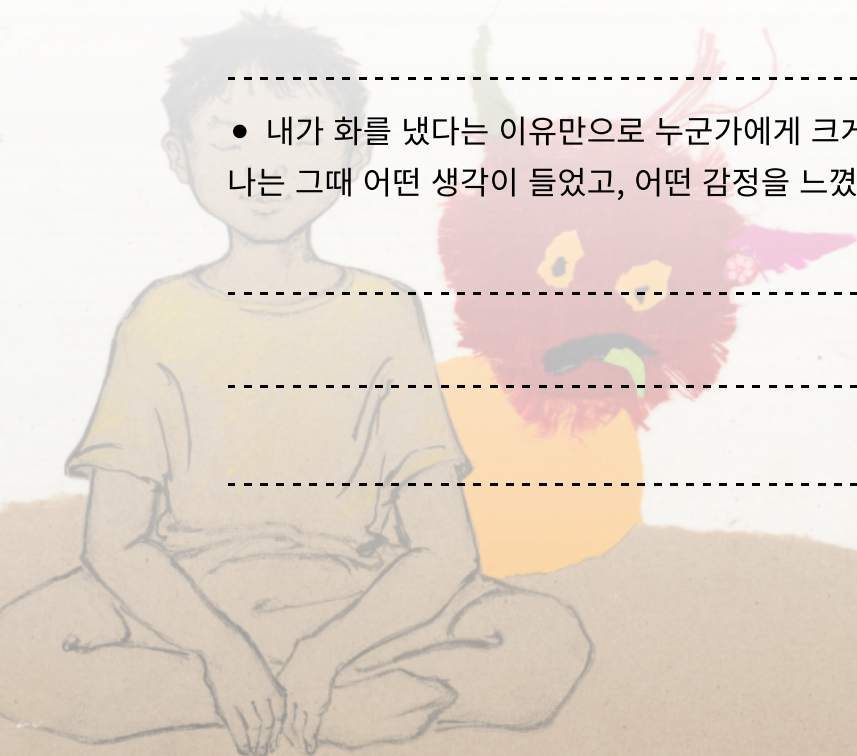
우리도 안과 마찬가지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화에 관한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 나는 어떨 때 화가 나나요?

- 나는 화가 나면 어떤 행동을 하나요?

- 나는 화를 누그러뜨리려 노력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노력을 했나요?

- 내가 화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크게 혼난 적이 있나요?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활동3 감정을 다루는 방법

얀의 화는 긴 혀와 뾰족한 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처음 등장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정은 점점 누그러지고, 몸집도 점점 작아졌어요.
무엇이 화를 변하게 한 걸까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써 봅시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얀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가끔은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도와줄게." 얀의 화가 말했어요.

"네가 어떻게? 너 때문에 처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난 네 친구잖아. 네가 화가 날 때면 언제든지 나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조금만 함께 있어도 네 기분이 한결 좋아질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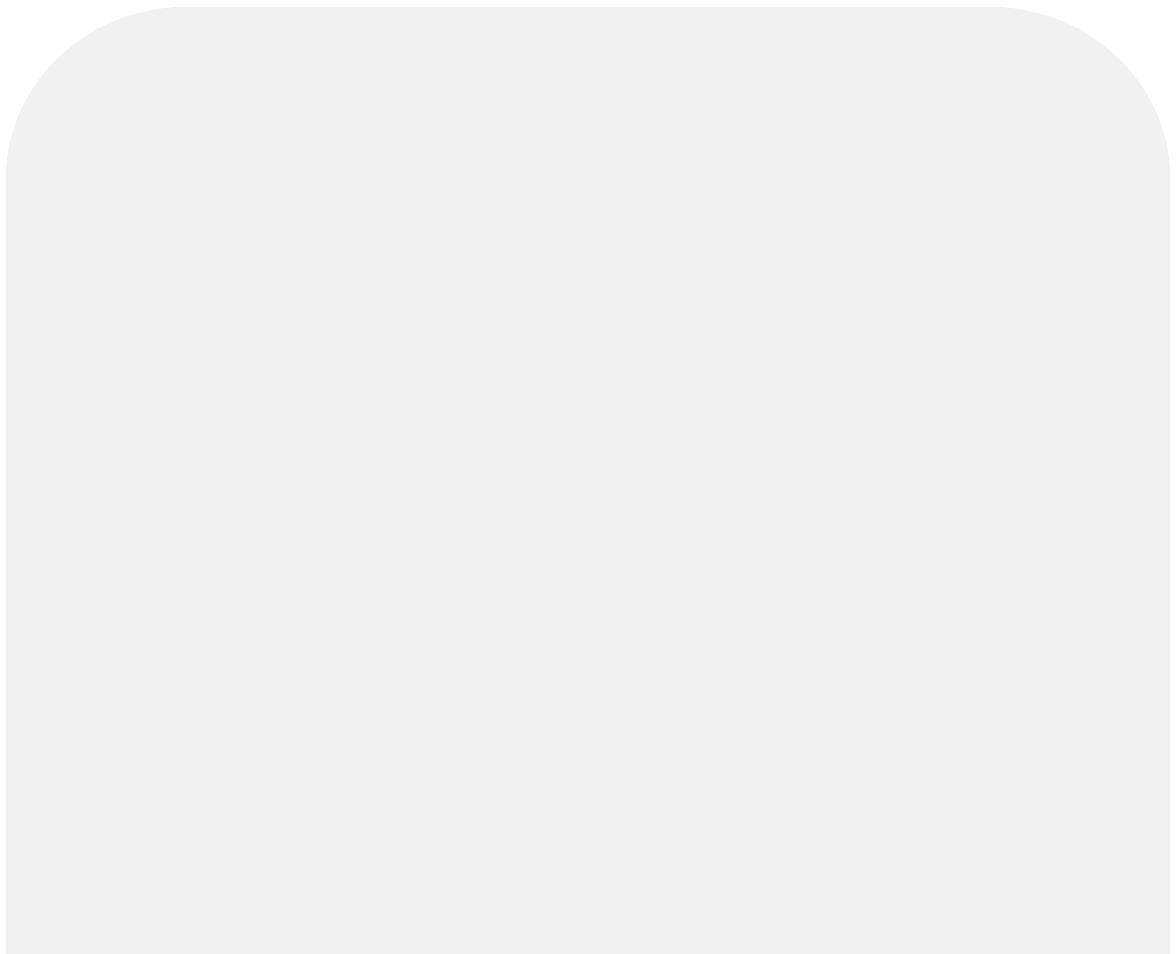
그동안 '화'처럼 갑자기 나타나 여러분에게 제멋대로 굴었던 또 다른 감정이 있나요?
그 감정도 얀과 화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그 감정에 대해 생각하며 아래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그 감정은 무엇이고,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나요?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이 감정은: _____

2. 여러분은 그 감정과 어떤 활동과 대화를 하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3. 위와 같이 시간을 보낸 후, 그 감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려 봅시다.



활동4 화의 자기 소개

화는 안의 앞에 처음으로 나타났을 때 안에게 아래와 같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 나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어떤 일이 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에게서 뛰쳐나오는 너의 한 부분이야.
네가 화를 낼 때마다 나는 바로 이렇게 네 곁에 있어.
내가 가까이 있으면 네가 무서워한다는 것도 잘 알아.
나는 널 울게 할 수도 있고, 네가 물건을 부수게 만들 수도 있어.
게다가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

사람들의 화는 서로 닮아 있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는 어떤 말로 자신을 소개할 것 같나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여러분의 한 부분인 화의 자기소개를 써 봅시다.

(), 나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활동5 할아버지의 이야기

할아버지도 어릴 적에 자신의 화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에게는 어떤 화나는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화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 글을 읽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안에게 들려준 그때의 이야기를 써 봅시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나도 나의 화를 만났었다."

"정말이에요? 블록 쌓기 때문이었나요?"

"아니란다." 할아버지가 웃었어요.

"그때는 블록은 없었고, 백합이 가득 핀 연못과 개구리와
절대로 질 것 같지 않은 태양이 있었다.

이리 오렴, 저녁을 먹자. 그러고 나서 내 이야기를 들려주마."

야야, 저녁을 다 먹었으니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주마.
